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14일 신년기자회견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 34대 출법 후 가진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할 것을 발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은 앞으로 4년 간 지혜를 가꾸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웃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화쟁의 정신은 지혜와 자비에서 기원하는 만큼 이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은 지난 4년간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라는 불교를 발원하며 화쟁위원회, 노동위원회 발족, 자비나눔 등 사회적 소통을 강화했다”면서 “이러한 성과들을 이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구현하고 모든 생명들이 평화를 누리는 불국정토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단은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 △지혜와 자비를 구현하는 사부대중 공동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을 제 34대 집행부 임기 동안 실현할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다. 이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6일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실무식에서 피력했듯

이 자비와 나눔을 바탕으로 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3가지 중점과제 가운데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의 불교’를 첫 번째로 내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자리에서 “나눔과 봉사의 종단을 구현하

도 청정한 승가의 위상을 세우고 인재양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가 정규를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승려법을 개정해 법계 행위를 엄격 관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계에 따라 종단과 사회에 대한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역경·국제포교 등 승가 전문인력을 육성,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인재양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종단 개혁불사 20주년을 맞아 승가복지, 중앙과 교구의 균형발전 등을 내세운 ‘불교중흥을 위한 지속적 종단 혁신’도 눈여겨 볼만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올해는 1994년 종단개혁 20주년이면 종단 승가복지의 원년이 되는 등 종단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라며 “오는 3월 승려복지법 개정을 기점으로 승가복지를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교구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승려복지, 교구인사제도 개선, 말사 주지인사 교구위임을 논의하고, 이 가운데 말사 주지인사의 교구위임은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편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제34대 집행부 중점과제 등 종단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갑오년 새해, 신년대법회로 연다

본지 불교진흥원 불교방송 공동 개회

2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울 마포 다보빌딩 대강당서
인한 지안 성오스님 등 초청

가라’는 내용의 법문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5일간 법석의 서막은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스님이 연다. 2월11일 둘째 날 법문은 서울 전 등선림 선원장 동명스님이, 12일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해주스님, 13일은 서울 흥원사 주지 성오스님이 맡는다. 마지막 화향인 14일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인환스님이 법석에 오를 예정이다.

불교진흥원 관계자는 “최근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때를 맞아 열리는 법회이니만큼 선지식들의 법문을 통해 아집과 독선으로 묶든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불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하영 기자 hykim@bulgyo.com

“불자들과 함께 염 추기경 임명 축하”

총무원장스님 축하메시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3일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주교의 추기경 임명과 관련 축하메시지를 발표하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염수정 서울대교구 대주교님이 한국인으로서 세 번째 추기경 자리에 오르는 것을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 불자들과 함께 축하드린다”면서 “대주교님의 평소 말씀대로 종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류의 갈등과 고통을 줄여나가는 것은 불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의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염수정 대주교는 12일 고(故)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국내 세 번째 추기경에 임명됐다. 추기경은 로마 교황의 선임하는 최고 승품으로 교황청의 각 관청 장관 등의 요직을 맡으며, 교황선거권을 행사한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정부지원금 대부분 전통문화 선양 사업

템플스테이, 문화재단장소장처 보존관리 등 20여건

조계종이 올해 불교문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361억 7000여 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계종 총무원이 밝힌 ‘2014년도 종단 관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38억 6000여 만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3억1000여 만원 등 총 361억7000여 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가 직접 개발 사찰에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9억4000여 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지원사업 가운데 충주 석종사 내 명상체험센터 건립을 위한 직접예산 10억 원

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보다 6000여 만원 감소한 셈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호국불교의승군기념관 건립, 사찰 등 문화재단장소장처 보존관리 등 2건이다. 계속사업은 템플스테이,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 근대 한국불교 대표문화 영역 편찬사업, 호국불교사업, 연등회, 산사문화예술제, 불교문화행사, 사진아카이브 구축, 청소년 마음등불, 전통사찰 전수조사, 10·27범남 기념사업, 전국 금석문 조사,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폐사지 조사, 전국 주요 폐사지 보존

정비 등 14건이다.

이 가운데 템플스테이 예산이 지난해와 동결된 1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은 지난해에 비해 10억원이 줄었다. 또 종단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전통사찰 전수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5억원이 인상된 6억원이 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스님은 “올해 종단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에 비해 실질적으로는 소폭 감소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만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청소년과 가족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

불교문화사업단-여가부 업무협약

약자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통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던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은 지난 10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협약(서인)을 맺고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불교문화사업단과 여성가족부는 템플스테이 체험활동 무료지원과 특화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여성 노인 빈곤층 한부모 자녀 등 취약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조윤선 장관은 “청소년들이 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템플스



테이가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화스님은 “청소년과 가족계층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으로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나가야 할 존재”라며 “템플스테이가 청소년들의 심신치유는 물론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bulgyo.com

■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 ‘미녀 불자 3총사’

13면

■ 장학회 운영하는 전 포교원장 도영스님

14면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2014년 법왕사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1년간 3회에 걸쳐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대설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 중명 : 중심문도회(대표 : 회주) 학승 심경스님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제26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1월 16일(목)

회향 : 2014년 4월 25일(금)

● 첫째날
1월 16일 입재법문

● 100일차
4월 25일 회향법회

도법스님
전북남원 실상사화주

무관스님
해인사 홍제암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5월 13일(화) 성영스님
회향 : 2014년 8월 20일(수) 해승스님

제28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 : 2014년 9월 13일(토) 연담스님
회향 : 2014년 12월 21일(일) 지현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법왕사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제26회 백고좌대설법회 법사명단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1일자	1월 16일 困	도법스님	전북남원 실상사 화주
2일자	1월 17일 困	가산스님	충북 원흥사 조실
3일자	1월 18일 困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회 주
4일자	1월 19일 困	철운스님	법주사 강주
5일자	1월 20일 困	총연스님	인천 수미정사 주지
6일자	1월 21일 困	영산스님	경남진주 해룡사 주지
7일자	1월 22일 困	광명스님	서울 비로선원 주지
8일자	1월 23일 困	관일스님	서울 보현사 법사
9일자	1월 24일 困	동봉스님	경기도광주 우리월 주지
10일자	1월 25일 困	일우스님	대구 성원암사 주지
11일자	1월 26일 困	해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12일자	1월 27일 困	성법스님	대전 구룡선 원장
13일자	1월 28일 困	성담스님	충남 효심사 주지

제26회 백고좌 대 법회기간 중 특별법회

비구니스님 초청 팔상성도 대법회
: 2014년 3월 8일~3월 15일(8일간)

제주도 2박 3일 순례법회
: 2014년 4월 2일~4월 4일(2박 3일)
- 선착순 150명 모집